

베트남 2018: 경제성장의 가속화와 정치적 보수화*

이한우** · 채수홍***

국문초록

베트남은 2018년에 GDP 성장률 7.08%라는 10년 내 최고의 기록적 성장을 나타냈고, 1인당 GDP도 2,587 달러로 증가하였다. 교역과 투자의 증가를 보면 베트남의 성장세는 부인할 수 없이 뚜렷하다. 베트남은 이처럼 공업-건설부문의 성장 등을 통해 산업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경제의 대외종속성의 심화라는 숙제를 남기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견지하면서 체제 내 개혁(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응우옌 푸 쩡(Nguyen Phu Trong) 공산당 총비서 겸 국가주석을 비롯한 현 지도부는 반체제 블로거를 단속하기 위한 사이버보안법을 집행하여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또한 국회 및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신임투표를 실시하는 등 당내 민주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이면서 동시에 자기 검열이라는 복합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현 지도부는 부패척결운동을 통해 국가 지도

* 저자들은 유익한 비평으로 이 논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사의를 표한다. 이한우는 이 논문이 서강대학교의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신진2: 201710070.01)의 결과임을 밝힌다. 채수홍은 이 논문이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7S1A2A3055559)의 결과임을 밝혀둔다.

** 서강대 동아연구소, asia@sogang.ac.kr

*** 서울대 인류학과, chae4811@snu.ac.kr

자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정책을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베트남은 중국, 미국 등과 양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리를 취하려는 실용적 외교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이는 한국도 베트남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호혜적 관계를 통해 양국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18년 베트남이 보여준 정치경제적 변화와 지속성, 개혁개방과 자주성, 보수적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와 개혁이라는 모순된 목표의 어색한 동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베트남, 경제성장, 산업화, 경제특구, 사이버보안법, 신임투표, 부패척결운동, 신남방정책,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I. 서론

베트남은 2018년에 굵직한 일을 여러 가지 겪었다. 베트남 유력 인터넷 신문 *VnExpress*는 2018년의 결정적 순간을 장식한 10대 뉴스로, 응우옌 푸 쩡(Nguyen Phu Trong) 공산당 총비서(총서기)의 국가주석 임명,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비준, 지난 10년 중 최고의 경제 성장, 부패 연루 고위 인사들의 수감, 아세안 세계경제포럼 개최, 경제특구법안 반대 폭력 시위, 아세안 컵 축구 우승, 입시부정사건, 13명이 사망한 카리나 플라자(Carina Plaza) 아파트 화재 사고, 기록적 외국인 방문객 등을 들었다(*VnExpress* 2018/12/24). 이 밖에도, 축구 우승에 따른 박항서 열풍, 소수민족 에데 족 출신의 미스 베트남이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5위권에 진입한 소식 등도 베트남 사회를 달궜다.¹⁾

1) 소수민족 출신 미스 베트남에 대하여는 심주형(2018)이 논의하였다.

이 논문은 2018년 베트남에서 일어난 주요 사안들 가운데 경제, 정치,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그 지속적 특징과 변화를 심도 있게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베트남의 경제적 성장이 만들어낸 잠재력과 이에 동반하는 과제를 통해 장·단기적 전망을 시도한다. 또한 경제적 개혁개방의 가속화와 일견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치적 보수화 현상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대외관계의 경우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에 대하여 베트남이 보여주고 있는 전략적 행보를 설명하고 이의 효과와 한계를 성찰하고자 한다. 이처럼 이 논문은 2018년 베트남에서 일어난 주요한 정치경제적 그리고 외교적 사건의 의미를 현재와 미래의 시간 속에 위치지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II.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와 과제

베트남에서 서열 1위와 2위인 공산당 총비서(총서기)와 국가주석을 겸하고 있는 응우옌 푸 쩡(Nguyen Phu Trong)은 2018년을 결산하는 회의에서 베트남의 경제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베트남통신사(Vietnam News Agency)도 2018년 10대 뉴스를 선정하면서 지난해에 정부가 세운 열두 가지의 사회경제적 목표가 모두 달성된 점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국회 비준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평가했다(VNA 2018a)²⁾. 베트남 경제가 최근 10년 내에

2) 베트남통신사의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1) CPTPP 국회 비준, (2) 12개 사회경제적 목표 모두 달성, (3) 해양중심 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장기지속성 있는 정책방향 설정, (4) “베트남 상품의 베트남 인민 정복(Hang Viet Nam Chinh Phuc Nguoi Viet Nam)” 운동, (5) 외국직접투자(FDI) 30년, (6) 국가자본관리위원회 설립, (7) 주요한 경제법 위반 사건의 해결, (8)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 아세안 회

가장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인상적일 만큼 사회 발전을 성취한 것만은 분명하다.

베트남이 2018년에 이룬 경제적 성과는 외자 유입에 의한 수출에서 동력을 얻고 있는 베트남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경제성장률, 무역수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세 가지 지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베트남은 목표했던 6.7%를 넘어서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7.08%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무역량도 5,000억 달러에 육박했고 최종 무역흑자가 약 72억 달러로 2017년보다 51억 달러 가량 증가하였다(VNA 2018c).

이러한 성과는 승인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이 2017년보다 약간 감소한 354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실제 집행된 투자액은 3.1% 증가하여 사상최고인 165억 달러에 이르렀기 때문이다(Viet Nam News 2018/11/28). 이로써 외국인직접투자를 허가한 지 30년이 된 2018년까지 유입된 총 27,353개 프로젝트, 투자액 3,401억 달러의 외국인투자부문이 전체 수출의 70%를 담당하고 8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VNA 2018c). 이처럼 베트남은 외국자본의 유치에 의한 수출주도형 산업을 통해 사회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 성장과 함께 주목할 점은 베트남 경제가 산업별로 내실을 다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성장 동력인 공업-건설 부문이 8.85% 증가하며 전체 성장의 42.7%에 기여한 것은 물론, 내수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 부문과 농수산업 부문도 각각 7.03%와 3.76%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 전자, 섬유를 필두로 한 제조 및 가공 부문이 모두 10% 이상 성장하며 등록된 외국자본의 47%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다른 부

의 개최, (9) 베트남 상표의 자동차 첫 생산, (10)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바이러스 백신의 성공적 생산.

문도 함께 커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관광, 수산업, 금융, IT, 그리고 소매업의 성장이 베트남 산업의 선진적 다변화와 내수시장의 잠재력 확충을 견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이 가운데 2018년도에 성장이 두드러졌던 몇 개 부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인프라 확충과 개인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부동산 부문은 금융위기의 한파가 몰아쳤던 2008년을 제외하고는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내국인의 부동산 투자 열풍과 2015년 7월 외국인 부동산 구입과 임대의 허용에 힘입어 2018년에는 규모가 135.7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외교부 2018: 87-88). 실제로 부동산은 2018년 외국인 투자 가운데 제조업 다음으로 많은 18.5%(약 66억 달러)를 차지했다(VNA 2018b), 아직 포장도로가 28%에 불과하고 빠른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부문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외교부 2018: 93-95).³⁾

부동산과 더불어 주식시장의 성장도 주목할 만하다. 6-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 3년 연속 목표를 초과 달성한 4% 미만의 물가, 지속적인 내수시장의 성장 등 소위 경제의 펀더멘탈이 안정됨에 따라 베트남 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한국투자증권 2018: 3-4). 이와 함께 관리변동환율제⁴⁾를 고수하고 있는 베트남 동(Dong)도 2018년 신흥지역 통화지수가 11.3% 하락하는 동안 2.8%만 하락하였으며 외환보유고도 567억 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베

3) 2018년 하반기에 들어 베트남 내 부동산 버블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베트남 내부와 외부의 시각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베트남 외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거품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반면, 베트남 내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현 상태를 거품보다는 경기 회복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둔화되고 안정화 추세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엇갈리는 시각은 인구구성,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의 분화, 가구형태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 보다 면밀한 점검과 논쟁이 필요해 보인다.

4) 베트남은 $\pm 3\%$ 범위 내에서 대(對)고객환율을 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미국 연방 준비이사회의 금리정책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트남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고 있다(한국투자증권 2018: 3). 그 결과 제조업에 치중되었던 과거와 달리 부동산, 금융, 주식에 대한 외국인 자본의 관심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베트남의 경제규모는 2011년에 비해 두 배로 성장하였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전년도에 비하여 198 달러 증가하였다(VNA 2018c). 이로써 1인당 GDP는 2018년 2,587 달러가 되었다. 이와 같은 지속적 경제성장과 소득증가는 베트남이 수출기지로써만이 아니라 내수시장으로서 잠재력이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18년 한 해 동안 외국인 투자의 10.3%인 약 37억 달러를 끌어들이는 소매업이다(VNA 2018b). 외국인 자본은 제조업과 부동산 다음으로 소매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편의점, 극장, 전자 상거래, 중저가 의류 브랜드, 질 좋은 식품과 화장품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석운 2018).⁵⁾ 1억에 육박하는 인구, 30대 중반의 젊은 평균연령, 그리고 욕구와 능력의 증가속도를 고려할 때 베트남 소비시장은 현지와 외국 자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베트남 경제가 2018년에도 이처럼 순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역량에 맞게 세계경제 속의 적소(niche)를 잘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집권화를 바탕으로 국가주도의 개발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사회주의 발전국가’ 정부로서 현실진단, 단계별 정책의 방향설정, 정책추진을 큰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Beeson and Pham 2012). 아직까지 베트남은 사회주의적 상부구조와 자본주의적 하부구조의 “불편한 동거를 무난하게

5) 편의점 사용이 2010년보다 3배가량 늘어남에 따라 빈마트(VinMart+)가 2020년까지 점포를 4,000여 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한국의 롯데마트, e-마트 등도 점포수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64개의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CJ CGV도 2020년까지 이를 1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성장률은 동남아에서 2위로 온라인 쇼핑의 개화기를 맞이했다고 평가되고 있다(Kotra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17-18). 이밖에도 Deli Meat처럼 품질 좋은 육류 브랜드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유지”(채수홍·이한우 2018: 23)하면서 현실을 장·단기적으로 잘 파악하고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월 제12차 공산당대회는 개혁개방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경제의 안정적 성장, 구조조정과 성장모델의 변화, 선제조건으로서 정치적 안정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현실진단과 방향설정은 설득력이 있다(이한우·채수홍 2017: 166-168). 이러한 방향 아래서 베트남은 2018년에, 1) 제조업의 융성을 통한 고용증가의 지속, 2) FDI의 양적 증가와 함께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질적 다양화, 3) 각종 무역협정을 활용한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제도 개선, 4)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자립적 토대 마련을 위한 실천을 착실하게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Gunnion 2018: 2-4).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기존의 무차별적 외국자본의 유치에 지양하고(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2016/04/07 참조), 기술 집약적, 친환경적, 고부가가치적 산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이 두드러지게 실행되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 EU, 일본, 한국, 유라시아 등 16개 주요 무역상대국과 양자 FTA를 완성했으며, 2015년 말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협약에 따라 2018년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와인, 맥주 등의 역내 관세를 철폐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탈퇴로 일본이 주도하고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연말에 발효시켰다. 동시에 베트남은 중국이 주도하고 7년째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RCEP)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 정부는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가속화하여 세계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을 활용하려는 의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최운정 2015; 코트라 2015 참조).

이와 같은 베트남 정부는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

입과 병행하여,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내수시장을 외국자본에게 내주지 않기 위한 자조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2018년 11월 응우옌 쑤언 폭(Nguyen Xuan Phuc) 수상(총리)이 제창한 ‘베트남 상품의 베트남인 정복’(Hang Viet Nam Chinh Phuc Nguoi Viet Nam)이라는 모토를 내세운 관제 운동을 거론할 수 있다(VNA 2018a). 베트남 국내 산업이 자동차, 전기 오토바이, 전자제품, 농수산 가공 및 양질의 서비스 분야에서 선진적인 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품질과 가격을 제고하고 내수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처럼 베트남 제품이 세계가치사슬에서 경쟁력을 갖추므로써 국내시장만이라도 외국자본에 내주지 않으려는 시도는 국가자본관리위원회(the Committee for Management of State Capital)의 출범에서도 읽을 수 있다(VNA 2018a).

베트남 정부가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경제 자주성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2018년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소득 대비 수출입 총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무역의존도가 2017년에는 무려 193%에 이르렀고(박변순 2018: 3)⁶⁾, 외자기업에 의한 수출도 2016년에 이미 7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Asian Development Bank 2016: 23). 이처럼 과도한 외자유입과 무역의존도는 세계경제의 변동에 취약한 베트남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만들어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요동친 세계경제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가 2018년 인상적으로 선전한 것은 몇 가지 특수한 요인 때문이었다. 우선, 베트남은 미국이 부여한 대(對)중국 관세와 중국에 있던 외국계 노동집약적 공장의 베트남 이전과 같은 단기적 반사이익을 누렸다(Gunnion 2018: 5). 또한 베트남 경제의 높은 성장

6)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동 기간에 69% 정도를 기록했다.

를, 무역흑자 그리고 독자적인 환율제도로 인하여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세계가 치사슬에 얽매인 베트남 경제는 세계경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가 경제의 자립도를 높일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베트남 경제는 국영기업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을 활성화하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중간 연결고리가 부재한”(missing middle)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Busch 2017).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Malesky and London 2014: 411-414).

실제로 베트남 경제가 외국계 노동집약적 산업에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며 장기적으로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베트남의 임금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36%가 증가했으나 생산성은 아직도 태국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캄보디아보다도 낮다(Gunnion 2018: 5). 생산성의 증가가 임금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자동화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가속화된다면 현재 베트남 경제를 이끌고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도 크게 감소할 것이다.⁷⁾ 설상가상으로 현재도 막대한 무역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중국이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업 분야의 생태계를 지배하게 된다면 베트남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베트남 경제는 2019년에도 순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의 자본투자가 지속될 것이고 수출을 위

7) 국제노동기구(ILO)는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서 장차 56%의 일자리가 자동화된 기계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Gunnion 2018: 5).

한 제조와 가공 부문도 당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부동산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의 성장이 베트남 경제를 뒷받침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전망은 여전히 밝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의 혁신능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베트남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이 경험한 바 있는 ‘미성숙 탈공업화’(Rodrik 2015; 박번순 2018: 6에서 재인용)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베트남 경제에 대한 평가를 시도할 때 단기적인 수치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질적 변환의 과정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Ⅲ. 정치적 보수화

1. 국가주석 교체와 권력구도의 변화

정치적으로는, 2018년 9월 쩐 다이 쩡(Tran Dai Quang) 국가주석의 사망과 10월 응우옌 푸 쯡 공산당 총비서(총서기)의 국가주석 선임이 가장 핫 뉴스였다. 이전까지, 공산당 총비서는 그 직책만 담당하고, 당 정치국 위원이 서열 2위부터 차례로 국가주석, 수상(총리), 국회주석(의장)을 맡아왔으나, 이번에 공산당 총비서가 국가주석을 겸직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응우옌 푸 쯡의 시대’라고 일컬으며, 그의 권력 강화를 언급하였다. 응우옌 푸 쯡은 사회주의 체제의 수호에 상대적으로 보수적 견해를 가지고 있어, 향후 정치적 개방화가 진전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편, 2018년 3월 공산당 정치국은 딘 테 후인(Dinh The Huynh) 비서국 상무(常務) 겸 공산당 중앙이론위원회 주석을 건강상 이유로 사직시키고, 쩐 꾸옥 브엉(Tran Quoc Vuong) 공산당 중앙감찰위원회 주임을 비서국 상무로 선임하였다. 이와 함께 정치국은 응우옌

쭈언 탕(Nguyen Xuan Thang) 호찌민국가정치학원 감독(원장)을 공산당 중앙이론위원회 주석으로 임명하였다(VnExpress 2018/03/05). 8) 공산당 정치국 위원은, 딘 라 탕(Dinh La Thang) 호찌민시 당위원회 비서의 퇴출과 쩐 다이 팡 국가주석의 사망으로, 19명에서 17명으로 감소하였다.9)

응우옌 푸 쩡이 선두에 서서 추진해온 부패척결운동이 본 궤도에 올라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당초 응우옌 푸 쩡은 응우옌 바 타인(Nguyen Ba Thanh) 다낭시 당위원회 비서를 공산당 내정위원회(Ban Noi chinh)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정치국 위원에 선임하여 부패척결운동을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응우옌 바 타인이 반대세력의 저항에 의해 정치국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였고 이후 병으로 사망함에 따라, 부패척결운동의 동력이 약화되는 듯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우옌 푸 쩡은 응우옌 떴 중(Nguyen Tan Dung) 당시 수상(총리)을 제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마저 실패함에 따라, 부패척결운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듯하였다. 응우옌 푸 쩡이 2016년 1월 제12차 공산당대회에서 총비서로 재선되면서 부패척결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힘을 얻게 되었다. 초기에 부패척결운동은 주로 경쟁세력인 응우옌 떴 중 전임 수상의 측근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대표적 사례로서 정치국 위원이며 호찌민시 당위원회 비서였던 딘 라 탕(Dinh La Thang)이 페트로 베트남 사장 시절 과오로 3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 이와 관련되어 구속된 인사들이 30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후, 부패척결운동이 국영기업 임원, 고위 공무원, 경찰, 군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2016년 중반부터 2018년 중반까지 약 2년간 법률이

8) 응우옌 쭈언 탕은 호찌민국가정치학원 감독(원장) 이전에 베트남사회과학원 주석(원장)이었다.

9) 딘 테 후인은 공산당 비서국 상무로부터 사직했으나, 정치국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나 공산당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또는 기소된 당원은 1,300명이었고, 여기에는 중앙위원회 위원 10명, 정치국 위원 1명이 포함되었다(Le Hong Hiep 2018). 쓰엉 민 뚜언(Truong Minh Tuan) 정보통신부 장관이 임기 중 해임되기도 하였다. 응우옌 푸 쯡 자신이 부패하지 않으면서 부패척결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낸다면, 그는 역사에 기록될 인물이 될 것이다. 부패척결운동은 베트남 당-국가 체제라는 권력독점구조 하에서 대중주의적 관점을 상당 부분 띠고 있어, 정통성 약화에 따른 정치적 불안을 이완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려는 시각으로 바라볼 여지도 있다.¹⁰⁾

2018년 또 다른 정치적 이슈는 국회가 선임한 국가 고위 지도자들에 대해 신임투표를 실시한 것이다. 국회에서 신임투표는 2013년 6월 처음 실시되었고, 2014년 11월에 제2차로 실시되었는데, 2018년 10월에 제3차로 실시되었다. 신임투표는, 불신임을 택할 수 없고, 높은 신임, 신임, 낮은 신임만을 선택할 수 있기에 한계가 있지만, 낮은 신임을 많이 받은 지도자에게 향후 국정 수행에 압박을 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번 제3차 투표에서는 국회주석(의장), 수상, 외교부장관 등이 높은 신임을 받은 반면, 교육부장관이 가장 낮은 신임을 받았다. 교육개혁이 지체되고 최근 입시부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후, 하노이, 호찌민시 등 중앙직속시에서 신임투표가 시행되었고, 2018년 12월 25-26일 간 개최된 제12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9차 회의에서도 정치국 및 비서국 위원에 대한 신임투표가 실시되었고, 이후 하위 단위에서도 신임투표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신임투표의 ‘유행’은 베트남 정치인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효과를 가져오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결과로 해당자들의 책임을 묻는 데까지 진전되

10) 이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제12차 공산당대회를 전후한 시기부터 두드러진 권력경쟁의 맥락 속에서 정치적 변화를 별도의 연구로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견해를 피력하여 균형적 시각을 갖게 해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사의를 표한다.)

지는 않는 한계를 보인다.

2. 사회적 통제 강화

통칭 경제특구법안은 정식으로 “특별행정·경제단위에 관한 법안”(Du luat ve Don vi Hanh chinh - Kinh te Dac biet)이라고 하며, 쩡닌(Quang Ninh)성 번돈(Van Don, 북부 하롱베이 지역), 박번풍(Bac Van Phong, 중부 냐짱 북부지역), 푸꾸옥(Phu Quoc, 남부 캄보디아 연안에 근접한 섬) 등 베트남 내 3개 지역에 특구를 설치하고, 경제 및 행정상 자율권을 어느 정도 부여하여 최장 99년간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관광산업을 진흥시키려는 데 주된 목표를 두고 있다. 세 지역 가운데 번돈은 역사적으로 베트남의 대외교역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이었고, 근래에는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인근 지역인 하롱베이를 찾고 있어, 경제특구로 지정할 경우 중국인 투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¹¹⁾

반중국 정서에 기반하고 있던 베트남인들이 중국에 99년간이나 운영권을 줄 경제특구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해 전국적으로 시위를 일으켰다. 그들은 “중국에 땅을 임차하는 것은 원수에게 나라를 파는 것이다”(Cho Trung Quoc Thue dat la Ban Nuoc cho Ke thu Dan toc), “단 하루도 중공에게 땅을 임차하지 마라”(Khong cho Trung cong thue dat du chi 1 ngay) 등 반(反)중국 구호를 적은 종이를 들고 함께 시위에 참여하여, 전(全)국민적 저항을 표시하였다. 이 시위에는 어린이, 노인들도 참가하였다.

특구법안에 대한 반대 시위 도중에 사이버보안법이 국회를 통과

11) 베트남 국내 기업 선(Sun) 그룹이 투자한 민간 자본으로 번돈 국제공항이 2018년 7월 개항하였다.

한 이후에는, 국민들은 경제특구법안과 사이버보안법 철폐를 동시에 요구하며, “특구 없고, 중국 없고, 사이버보안법 없고”(Khong Dac khu, Khong Trung Quoc, Khong Luat An ninh mang) 구호가 적힌 종이를 들고 시위에 참가하였다. 어떤 이는 ‘Nam Quoc Son Ha’(南國山河)¹²⁾라는 인터넷 블로그를 만들어 시위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기도 하였다. 특히, 대만 철강회사 포모사(Formosa)가 일으킨 해양오염사건이 발생했던 하띤(Ha Tinh) 지역에서 천주교 성직자와 신도 등이 포모사 반대 시위를 이어가며 동시에 경제특구법안 반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남부의 빈투언(Binh Thuan)에서는 시위대가 경찰서 및 경찰차 방화 등 폭력 시위를 일으켰다. 특히 빈투언 시위에서 화염병이 등장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우리 기업은 베트남인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공장 정문에 재빨리 내걸고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베트남인의 반(反)중국적 정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뿌리 깊으며, 근래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공격적 주장과 무력시위가 증가하면서, 베트남인들의 반(反)중국 시위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인들은 중국의 공격적 행태에 대해 저항하지 않거나 못하는 베트남 지도부, 즉 공산당 총비서, 국가주석, 수상, 국회주석 등을 비판한다. 격렬한 저항에 대응하여, 수상이 경제특구법안을 2018년 10월 차기 국회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위는 잦아들지 않았고, 정부는 물리력으로 시위대를 해산하였다. 정부는 이 시위에 대응하여 최소 25명을 형사 입건하고 175명에게 벌금을 부과하였다 (VnExpress 2018/06/15). 이후 국회는 특구법안을 2019년에 심의하기로 연기하였지만, 언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는 알 수 없다.

12) ‘南國山河’는 베트남 리(Ly) 왕조 시기 리 트엉 끼엣(Ly Thuong Kiet) 장군이 중국 송나라에 맞서 싸우던 베트남 군대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부르게 했다는 시의 첫 구절이다. 여기에서 남국은 북국 중국에 대항하는 베트남을 가리킨다.

한편, 김정은과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악수하던 2018년 6월 12일, 베트남 국회는 사이버보안법(Luat An ninh mang, Cyber Security Law)을 통과시켰다.¹³⁾ 그 며칠 전 베트남 국회가 경제특구법안을 심의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전국적 저항 시위가 발생하고 있던 중이었다. 베트남 시위대들은 사이버보안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시위 중 경제특구법안 반대에 사이버보안법 반대 주장을 부가하였다. 사이버보안법은, 베트남 이용자가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에 업로드한 정보를 추적하는 메인 서버를 베트남 내에 두어야 하며, 베트남 정부가 이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를 통해 반체제 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되는 것을 막고, 반체제인사들을 옥죄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많은 비판적 인사들은 이에 반대하는 주장을 유포했지만,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집행으로 이러한 저항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사이버보안법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공산당은 지식계의 다원화 사고에 일침을 가하는 단속에 착수하였다. 공산당은 2018년 10월 당과 다른 노선의 책을 출판하였다며 쭈 하오(Chu Hao) 지식출판사(Nha xuất bản Tri thuc) 대표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VnExpress 2018/10/25). 쭈 하오는 전임 과학기술부 차관이었고, 이후 지식출판사를 설립하고 세계적 고전들을 베트남어 본으로 번역, 출판하여 베트남 지식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공산당의 징계에 대응해 쭈 하오는 공산당 탈퇴를 선언하였고, 응우옌 응옥(Nguyen Ngoc)을 비롯한 일부 비판적 지식인들은 “당이 나를 버리면, 내가 당을 버린다”(Dang bo, bo Dang)고 하며, 쭈 하오에 대한 징계에 항의하며 공산당을 탈퇴하였다. 이러한 지식계에 대

13) 사이버보안법 5조, 26조 등과 관련해서는 (<https://luatvietnam.vn/an-ninh-quoc-gia/luat-an-ninh-mang-2018-luat-an-ninh-mang-so-24-2018-qh14-164904-d1.html#noidung>)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 단속은 사회주의 체제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공산당은 물리력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외부 세력의 시도를 ‘평화적 전복’(和平演變, dien bien hoa binh)이라며 이에 대항할 것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덧붙여 제11차 공산당대회에서 ‘자기 전변’(自己演變, tu dien bien), ‘자기 전화’(自己轉化, tu chuyen hoa)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내부로부터 침식시키는 사상과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였다.¹⁴⁾ 그간 이 두 개념을 적용하여 비판적 지식인들을 탄압한 사례는 없었으나, 이번 쭈 하오에 대한 징계는 사상의 다원화 과정에 대한 ‘역 코스’로 이해된다. 공산당의 이러한 보수화는 그간 개혁과정에서 진행되어온 일원주의 완화로의 변화에 경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⁵⁾

IV.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과의 양가적 관계

2018년에 세계는 미중 패권 다툼의 거센 파도에 휩쓸렸다. 보복관세를 주고받은 무역에서만이 아니라 대외관계에서도 양국의 갈등은 여러 사건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세계의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양 강대국의 충돌과 타협의 정치경제적 영향을 받았으며 기존 외교 전략의 수정을 검토해야만 했다. 베트남의 대외관계에서

14) ‘평화적 전복’(dien bien hoa binh)은 외부 세력이 물리력이 아닌 평화적 수단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것을 뜻하며, 1990년대부터 언급되어 왔다. ‘자기 전변’(tu dien bien), ‘자기 전화’(tu chuyen hoa)는 체제 내부적 침식으로 인해 사회주의 체제가 전복되는 것을 뜻하며, 2011년 제11차 공산당대회에서 처음 제시되었다(DCSVN 2011: 170).

15) 사회주의 체제 하 일원주의 완화에 대하여는 이한우(2007)가 논의하였다. 최근 일련의 과정을 단순한 당-권력 강화시도가 아니라 정치체제 또는 지배집단 내 균열의 징후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이 견해를 제시한 익명의 심사자에게 사의를 표한다).

가장 긴요한 것은 지정학적으로 근접해 있는 중국을 의식하면서 정치경제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특히 통일 이후 중국과 협력과 갈등을 반복해온 베트남으로서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특히 2014년 중국이 호앙사(Hoang Sa)군도에 석유 시추를 개시하면서 다시 격화된 영토분쟁, 2016년 이후 베트남 국민의 반(反)중국 정서의 폭발, 그리고 아세안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베트남이 중국에 대하여 양가적 감정과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김석수 2016).

베트남의 대중국 전략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삼불정책, 영토분쟁과 관련한 헤징(hedging)전략, 그리고 아세안과 미국을 활용한 힘의 균형유지가 그것이다(김성철 2018). 1998년 외교백서에 처음 등장한 삼불정책은 특정 국가와 동맹을 맺지 않고, 군사기지를 제공하지 않으며, 제3국에 반대하는 국가와 결탁하지 않는 것이다(Le Hong Hiep 2015: 14). 이러한 삼불정책에 근거해서 베트남은 대부분의 국가와 동맹 대신에 동반자 관계(partnership)를 맺고 군사적 연대가 아닌 정치경제적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기조는 기본적으로 이웃의 강대국인 중국과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고육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결과 베트남은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도 적극적인 외교 분쟁을 피하는 헤징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아세안의 이웃들이나 미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과시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김성철 2018).

2018년 베트남-중국의 대외관계에서 주목할 점은 양국의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베트남 내 반(反)중국 정서의 폭발이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양가적 태도를 더욱 강화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경제특구법안이 중국 자본의 유입과 토지의 장기임차를 초래할 것

이라는 우려 때문에 베트남 국민의 반발이 거셌고, 이로 인하여 베트남 지도층이 대내적으로는 반(反)중국 정서를 용인하고 대외적으로는 이를 내색하지 않는 이중적 대응을 해야만 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2017년 한 해에만 61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아세안의 국가들로부터(박번순 2018: 8) 중국이 힘을 과시하며 이 지역에 지배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불필요한 의심을 살 필요가 없었다. 하여 논란을 일으킬 만한 외교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또한 2017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남중국해의 공동개발과 무역교류 확대의 기초를 굳이 흔들 이유가 없었다(이은미 2017 참조). 이로 인하여 2018년 한 해 동안 베트남과 중국은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지 않은 채 기존의 양가적 관계를 재생산하였다.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 역시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구원(舊怨)은 깊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서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양가적인 태도를 유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2017년 1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국 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만 해도 베트남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 중국을 군사적, 외교적으로 견제하는 대신, 미국이 신흥개발도상국인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돕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Le Thu Huong 2017: 1-2).

주지하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의 외교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기초가 바뀌었다. 실제로 2017년 5월 베트남의 응우옌 쑤언 폭 수상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베트남의 최대 무역흑자국가이고 베트남은 미국의 6위 무역적자국가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로 인하여 가난한 베트남이 부국인 미국의 대표기업 GE와 Caterpillar 등에게 150-170억 달러의 계약을 선물하는 진풍경을 연출하였다(윤보나 2017).

마찬가지로, 베트남이 경제성장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고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전격 탈퇴하며, 양국은 경제적 동반자로서보다 경쟁자로서 서로를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협력의 공식이 바뀌어 이제 베트남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가 확인되어야 양국의 외교적 신뢰를 다질 수 있게 되었다. 초강대국 미국의 이러한 실용주의적 외교기조로 인하여 2018년 양국의 관계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은 채 특별한 마찰도 진전도 없이 지나갔다.

베트남의 중국-미국의 관계와 비교해 볼 때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긴밀했다. 2017년 APEC 회의에 참석해 정상회담을 가졌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해 11월 ‘한-인도네시아 포럼’에서 ‘신남방정책’을 선언하며 아세안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의 하나로 간주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그 첫 걸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에 2박 3일 동안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여 쩌ن 다이 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국빈 방문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베트남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박항서 축구감독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이었다. 이 만남은 베트남인과 한국인이 경제관계를 넘어 서서 맺고 있는 특별한 사회문화적 관계를 효과적으로 재현했다.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17년 한국 총수출의 16.6%를 아세안에서 흡수하고 있고 한국이 2005년 이후 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내고 있는 현실에서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아세안 국가 가운데 베트남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 중요성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이다. 2017년 현재 한국은 아세안에 952억 달러를 수출하고 538억 달러를 수입하며 414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316억 달러를 베트남에

서 벌어들이고 있다(박변순 2018: 11 참조). 현재 베트남의 FDI 누적 투자액 1위인 한국이 베트남과 약속한대로 2020년까지 1천억 달러의 교역을 달성하게 되면 베트남은 미국을 추월해 한국의 제2 교역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긴밀한 경제적 교류를 바탕으로 2018년 현재까지 약 6천여 개의 한국기업과 약 15만 명의 한국인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해 있으며 대략 1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한경닷컴게임톡 2019/01/03).

한국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한국도 중간재와 부품의 수출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8년도에도 한국은 수출증가와 무역흑자의 상당부분을 베트남에서 성취했다(정귀일·문병기 2018: i-ii).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한국 정부와 기업이 베트남을 가치 있는 수출기지와 내수시장으로서만 인식한다면 베트남인에게 양국관계가 일방적이고 “약탈적”인 것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 점점 커져가는 무역불균형이 장기적으로 가져올 부작용을 성찰하고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양국관계는 정치경제적으로도 사회문화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다(정귀일·문병기 2018: 21-22). 한국의 입장에서든 투자가 베트남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무역수지 흑자가 과도한 것은 장기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박변순 2018: 14).

2018년 현재 한국과 베트남 관계의 긴밀함은 이처럼 양가적이다. 개혁개방 초기부터 한국은 베트남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왔다. 하지만 교역량이 급증한 시기는 2006년 시작된 한-아세안의 FTA와 2015년 발효된 한-베트남 FTA 이후이다. 그 결과 베트남의 입장에서 기대했던 한국기업의 투자확대도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우려했던 무역적자의 확대도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호혜적인 기반 위에 인적, 물적

관계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질 때 신남방정책이 추구하고 있는 3P 즉 사람(people), 평화(peace), 번영(prosperity)의 정신이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베트남에서 일고 있는 ‘박항서 축구 열풍’, 100만 명을 상회한 한국인 관광객의 베트남 방문 급증, 베트남인의 한국 방문 시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으로 양국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우호적이지만, 베트남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상생을 위한 철학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V. 결론

베트남은 2018년에 10년 내 최고의 경제성장을 기록했고 외국인 투자, 물가, 고용율 등 주요한 경제지표가 매우 양호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와 무역흑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상도 고무적이다. 베트남이 내부와 외부에서 기대하는 외형적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듯이 이러한 성장세는 중단기적으로 큰 문제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베트남 국민의 소비 욕구와 역력이 급증하면서 수출만이 아니라 내수시장의 성장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금융이나 IT 등으로 대표되는 선진적인 산업의 다양한 배양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경제는 장기적으로 난제를 안고 있다. 소위 신흥공업지역으로서 선진적인 산업으로의 도약을 하지 못한다면 중진국이 되기 전에 다시 탈산업화가 일어나면서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평균 연령의 증가, 생산성 대비 임금의 빠른 증가, 제조업의 자동화 등을 경험하고 있는 베트남이 장기적인 먹을 거리를 준비하지 못한

다면 노동집약적 산업을 통한 고용과 수익의 창출만으로는 버티기 힘들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공업-건설부문이 외국인 직접투자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베트남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관건은 현재의 단기적인 호황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가 일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2018년에도 이러한 장기계획에 맞게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그 성과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견지하면서 체제 내 개혁(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응우옌 푸 쯙 총비서를 비롯한 현 지도부는 반체제 블로거를 단속하기 위한 사이버보안법 등을 집행하여 사회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도전에 강력히 대처하면서, 쭈 하오 지식출판사 대표에 대한 징계로 대변되는 체제 내 비판자들에 대한 단속을 이전보다 강화하였다. 한편, 국회 및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신임투표를 실시하는 등 당내 민주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이면서 동시에 자기 검열이라는 복합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 동시에 응우옌 푸 쯙을 비롯한 현 지도부는 부패척결운동을 통해 국가 지도자들이 좀 더 건전하게 정책을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2018년 베트남은 큰 틀에서 기존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속을 차리려고 여러 노력을 지속하였다. CPTPP를 포함한 대형 경제협정과 여러 FTA를 승인하면서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고 타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다변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이 중국, 미국 등과는 양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용적 외교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면서 무역이익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중국으로부터의 군사적 보호막으로 미국을 활용하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반면 중국으로부터는 너무 가깝게도 멀게도 느껴지지 않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국내의 반(反)중국 정서를 아우르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양가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에서 추가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은 향후 양국의 관계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베트남이 한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점증하는 무역적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베트남이 보여준 정치경제적 변화와 지속성, 개혁개방과 자주성, 보수적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와 개혁이라는 모순된 목표의 어색한 동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석수. 2016. “남중국해 분쟁과 베트남의 전략.” 『동남아시아연구』 26(4): 1-37.
- 김석운. “내수시장의 확대.” 김석운의 베트남 통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swkso&logNo=221435406739> (검색일: 2019.01.08)
- 김성철. 2018. “남중국해 분쟁과 베트남의 대중국 해징.” *중소연구* 41(4): 99-135.
- 박번순. 2018. “신남방지역으로서 아세안과 경제협력 방안.” 2018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 발표문.
- 심주형. 2018. “여성성, 아름다움, 소수민족 그리고 초국적 경합: 베트남 미인선발대회 열풍의 문화-정치적 함의.” 심주형 외. 『세계화의 창 동남아: 사회·문화의 혼종적 재구성』.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제1장: 9-54.
- 외교부. 2018. “베트남 개황.”
- 윤보나. 2017. “베트남 총리, 트럼프와 만나 ‘통상’을 이야기하다.” 베트남 호치민 무역관.
- 이은미. 2017. “베트남 고령화 추세 진단 및 인구구조, 소비시장 변화 전망.” *Trade Focus* 30: 1-15.
- 이한우. 2007. “베트남에서 개혁의 확대와 정치적 일원주의의 완화: 제10차 당대회 결과 분석.” 『신아세아』 14(1): 84-108.
- 이한우·채수홍. 2017. “베트남 2016: 정치, 경제, 대외관계의 현황과 전망.” 『동남아시아연구』 27(1): 163-191.
- 정귀일·문병기. 2018. “2020년 2대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베트남.” *Trade Focus* 12: 1-23.
- 채수홍·이한우. 2018. “베트남 2017: 경제, 정치, 대외관계의 현황

- 과 전망.” 『동남아시아연구』 28(1): 21-51.
- 최윤정. 2015.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인도 제조업 진출전략.”
Global Strategy Report 15-0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코트라. 2015.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과 과제: 베트남을 중심으로.”
Global Market Report: 1-31.
- 코트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베트남 투자뉴스.” 2018.5.21.
- 한경닷컴게임톡. 2019. 1. 3. “포스트 차이나, 한국은 베트남 투자국
1위.” [http://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
idxno=50390](http://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50390) (검색일: 2019.01.08)
- 한국투자증권. 2018. 10. 5. “베트남 3분기 GDP 점검과 투자전략.”
- Asian Development Bank. 2016.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6
Update: Meeting the Carbon Growth Challenge.”
- Beeson, M. and Hung Hung Pham. 2012. “Developmentalism with
Vietnamese Characteristics: The Persistence of State-led
Development in East Asi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2(4): 539-559.
- Busch, M. 2017. “The Missing Middle: A Political Economy of
Economic Restructuring in Vietnam.” Lowy Institute Report.
- DCSVN(Dang cong san Viet Nam). 2011. *Van kien Dai hoi Dai bieu
Toan quoc Lan thu XI*. Ha Noi: Nxb Chinh tri Quoc gia.
- Gunnion, L. 2018. “Vietnam: Economy continues Robust Growth in
2018.” *Deloitte Insight*: 1-5.
- Le Thu Huong. 2017. “Vietnam is a Promising Partner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Asia Pacific Bulletin* 387: 1-2.
- Le Hong Hiep. 2015. *Trends in Southeast Asia: Vietnam's Alliance
Politics in the South China Sea*.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_____. 2018. “Vietnam’s Anti-corruption Campaign: How much is it about Political Infighting?” *ISEAS Commentary* 2018/77, 5 July 2018.
- “Luat An ninh mang.” <https://luatvietnam.vn/an-ninh-quoc-gia/luat-an-ninh-mang-2018-luat-an-ninh-mang-so-24-2018-gh14-164-904-d1.html#noidung>. (검색일: 2019.02.20.)
- Malesky, E. and J. London. 2014. “The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in China and Vietnam.”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7: 395-419.
- Nguyen Manh Hung. 2018. “Vietnam in 2017: Power Consolidation, Domestic Reforms, and Coping with New Geopolitical Challenges.” *Southeast Asian Affairs 2018*. Singapore: ISEAS.
- Rodrik, D. 2015. “Premature Deindustrialization.” NBER Working Paper No. 20935.
- Viet Nam News. 28 November 2018. “FDI disbursement up despite a decrease in registered inflow.”
- Vietnam News Agency(VNA). 2018a. “Vietnam’s Top Ten Economic Events in 2018.” December 27.
- _____. 2018b. “Manufacturing Sector draws Most Interest from Foreign Investors.” December 27.
- _____. 2018c. “Vietnam’s GDP Growth Rate in 2018 Highest in 11 Years.” December 27.
- VnExpress. March 5, 2018. “Vietnam’s To Communist Party Official retires Early due to Health Reasons.” <https://e.vnexpress.net/news/news/vietnam-s-top-communist-party-official-retires-early-due-to-health-reasons-3718804.html> (검색일: 2018.03.06)

- _____. June 15, 2018. “Police Crack down on Protest Instigators in Vietnam.” <https://e.vnexpress.net/news/news/police-crack-down-on-protest-instigators-in-vietnam-3764184.html> (검색일: 2018.06.16.).
- _____. October 25, 2018. “Ông Chu Hào bị đề nghị kỷ luật vì 'tự diễn biến'.” <https://vnexpress.net/thoi-su/ong-chu-hao-bi-de-nghi-ky-luat-vi-tu-dien-bien-3829418.html> (검색일: 2018.10.26)
- _____. December 24, 2018. “10 Defining Moments for Vietnam in 2018,” <https://e.vnexpress.net/news/news/10-defining-moments-for-vietnam-in-2018-3856038.html> (검색일: 2018.12.25)

(2019.01.22. 투고, 2019.01.24. 심사, 2019.02.09. 게재확정)

<Abstract>

Vietnam in 2018:

The Acceleration of Economic Growth and the Conservatization of Politics

LEE Hanwoo

(Sogang University)

CHAE Suh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18, Vietnam had a GDP growth rate of 7.08%, its highest in ten years. GDP per capita also increased to 2,587 dollars. The increase in trade and investment makes it undeniably clear that Vietnam is experiencing continued growth. Vietnam is in this way reinforcing its industri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its construction sector, etc. But this method of growth is overly reliant on foreign investment and exports, and thus leaves unsolved the problem of economic subordination to foreign countries.

Vietnam is adhering to a socialist system while aiming for reform within that system. The current leadership, including General Secretary of the Communist Party and head of state Nguyen Phu Trong, is aggressively dealing with challenges to the socialist system by implementing a cyber-security law to monitor anti-regime bloggers. Furthermore, it is pursuing democratization within the party by, for example, holding a vote of confidence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a measure that has the complex effect of simultaneously strengthening responsibility to national leaders and self-censoring.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also demanding that national leaders implement policy in a more wholesome manner through an anti-corruption drive.

Vietnam maintains a practical approach to foreign affairs, benefitting from ambivalent relations with China, the United States, etc. Even in the case of South Korea, it closely cooperates to attract investments while simultaneously wondering how to reduce Korea's massive trade surplus. This implies that Korea, too, has to seek measures that encourage mutual growth through reciprocity in order to continue relations with Vietnam in the long term. Thus it appears that the awkward, contradictory cohabitation of politico-economic changes and sustainability, economic reform and autonomy, and a conservative socialist system and reform that characterized Vietnam in 2018 will continue for the time being.

Key Words: Vietnam, economic growth, industrialization, Special Economic Zone, Cyber Security Law, confidence vote, anti-corruption campaign, New Southern Policy, CPTPP

